

# 李濟馬 形象觀의 構造的 考察

李俊熙\* · 高炳熙\* · 宋一炳\*

## The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Lee Je-ma's viewpoint of Morpho-Image

*Lee Jun-hee, Koh Byung-hee,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Lee Je-ma's viewpoint of Morpho-Image. In the first place, I will define the viewpoint of Morpho-Image as the the structure of recognition and study it through bibliographic study on Lee Je-ma's work.

The conclusion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ructure of recognition, represented in 『Gyukchigo(格致藁)』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kyo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is based on Taigi(太極), Liangyi(兩儀), Sasang(四象). There are the mind of Taigi(太極), the mind of Liangyi(兩儀) separated from Taigi(太極), the mind of Sasang(四象) separated from Liangyi(兩儀). The mind of Taigi(太極) is the mind of center, the mind of Liangyi(兩儀) is the mind of the mind and body(or the wisdom and action).

Two axis, the mind(or wisdom) and the body(or action), cross and make Sasang(四象), affair-mind-body-object, which classifies all affairs and objects of humans, society, and the universe as four types.

2. Lee Je-ma summarized everything in view of Sasang(四象), Sasang(四象) in view of Liangyi(兩儀), Liangyi(兩儀) in view of Taigi(太極).

---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3. The procedure of recognition above is described in <The discourse on the Nature and Order>, <The discourse on the Four Principles>, <The discourse on the Establishment and Supplement>. Such is transformed in terms of human body and described in <The discourse on Viscera and Bowels>

Key Words : Morpho-Image, Liangyi(兩儀), Sasang(四象), affair-mind-body-object

## 초 록

### 研究目的

: 古代哲學家들은 宇宙의 本元을 연구하는 동시에 인류생명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였는데 기존의 精氣學說, 陰陽學說, 五行學說 등등은 이러한 시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形象觀을 事物을 바로보는 기본적인 認識體系, 認識論, 自然現象·人體現象을 설명하는 理論的인 도구 등으로 定意하고 東武의 形象觀을 고찰하여 보았다.

### 研究方法

: 東武는 자신의 形象觀을 자신의 著書인 「格致彙」,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등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東武의 著書를 바탕으로 그가 어떤 방법론으로 形象을 서술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人體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論하였다.

### 結 論

: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格致彙 太極箴」, 「格致彙 備略 事物」,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나고 있는 인식의 구조는 太極, 兩儀, 四象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太極之心이 있고, 거기서 二分法的으로 분파된 兩儀之心이 있고, 거기서 分派된 四象之心이 있다. 太極之心은 中央之心이고, 兩儀之心은 心身 또는 知行으로 표현이 되는데, 心的·知的 요소의 축과 身的·行的 요소의 축이 교차하여 事心身物의 四象을 형성한다. 四象으로부터는 기존의 周易에서와 같은 二分法的인 分派에 의해 八卦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四分法的인 分派에 의해 四四端을 형성한다. 이상이 동무의 기본인식체계의 구조라 할 수 있다.
2. 東武는 事心身物의 四象의 시각에서 그 기본을 삼고, 이를 다시 心身兩儀의 시각에서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를 太極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는 인식의 요약과정을 갖는다.
3. 이상의 인식과정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四端論·擴充論에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나니, 天稟之

已定の 요소이며, 人의 요소인 事物의 上下의 축과 天稟之已定之外의 요소이며 我的 차원인 心身(知行)의 축을 그 기본구도로 전개하며, 그 양축을 바탕으로 事心身物(天人知行)의 四元의 구도와 그 상호관계를 論하고 있다.

4. 東武의 太極, 兩儀, 四象 다시 말해서 心, 心身, 事心身物의 인식구조는 인체에서의 용어로 바뀌어져 病證論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는 臟腑論에 표현되고 있다.

## I. 緒 論

古代哲學家들은 宇宙의 本元을 연구하는 동시에 인류생명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였다. 예를 들면 戰國時代의 “精氣學說”은 ‘精氣’를 宇宙萬物의 本元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人體를 구성하는 기본물질로 보았다. 이러한 소박한 개념이 의학에 도입되어 ‘氣’라는 기본개념이 점차 성립되게 되었으니 그 認識의 기본 思想은 『莊子』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에 잘 나타나 있다. 즉, 自然, 人體의 모습을 그 리는데 있어서 ‘氣’라는 이론적 도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古代哲學의 陰陽學說은 陰陽이 모든 자연현상의 發生·發展·變化의 근원이며, 陰陽의 代立·統一·盛衰를 宇宙의 기본규율로 보았다. 이러한 陰陽學說이 의학에 침투하여 인체구조와 생리 기능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상호제약 및 상호전화 관계를 설명하게 되었다.<sup>1)</sup> 이러한 認識의 基本思想은 『莊子』 “天地者 形之大者也..., 陰陽者 氣之大者

也..., 陰陽 相照 相沖 相蓋 相治 四時相代 相生 相殺”에 잘 나타나 있고, 『內經 陰陽應象大論』<sup>2)</sup> “陽化氣 陰成形”도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古代哲學의 五行學說은 五行을 宇宙의 보편적 규율로 보고, 이로서 객관세계 내부의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比類取象’의 방법으로 五行의 屬性을 분류하여 세계만물의 五行圖式을 제시하였고 木火土金水의 특성에 비추어 抽象的으로 개괄하고 있다. 『周易繫辭傳』<sup>3)</sup>의 “方以類取 物以群分”은 이를 표현해주고 있다.<sup>4)</sup>

形象의 사전적 의미는 “感覺的·直觀的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像. 반드시 五官에 의해 직접적으로 자각하지 않더라도 뇌리에 생각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이면 된다.”<sup>5)</sup>하였고, 『辭源』에서는 ‘形은 形象·形體, 形狀·容貌, 形勢·地勢, 見露·表現, 對照 등의 뜻으로, ‘象’은 形象, 容貌, 凡形於外者皆曰象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sup>6)</sup> 여기서는 형상을 사물을

1) 박찬국 역 : 臟象學, 성보사, 서울, 1992

2) 홍원식 편 : 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3) 이정호 : 周易正義, 아세아문화사, 서울, 1984.

4) 김완희 편 : 한의학원론, 성보사, 서울, 1990.

5) 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1986

6) 『辭源』

形 : 今通作“形”. 一. 形象, 形體. 二. 形狀, 容貌. 三. 形勢, 地勢. 四. 見露, 表現. 五. 對照. 六. 模子, 通“型”. 七. 刑罰.

象 : 一. 哺乳動物. 二. 象牙曰象. 三. 形象, 容貌. 四. 凡形於外者皆曰象. 五. 酒器名. 六. 通譯之官. 七. 舞名. 八. 性.

바로보는 기본적인 認識體系, 認識論, 自然現象·人體現象을 설명하는 理論的인 도구로 定意하고 東武의 形象觀을 고찰하여 보겠다.

東武는 자신의 形象觀을 자신의 著書인 『格致藁』 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8), 『東醫壽世保元』 9) 등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東武의 著書를 바탕으로 그가 어떤 방법론으로 形象을 서술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人體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論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格致藁 反誠箴』에 나타난 事心身物의 構造

#### 1) 太極, 兩儀, 四象, 八卦에 대한 정의

기존 周易에서는 太極, 兩儀, 四象, 八卦를 설명하기를 易에는 太極이 있는데 太極이 兩儀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를 낳는다<sup>10)</sup>고 하

여 二分法的인 사고로 설명하고 있다. 東武는 이와는 달리 설명하기를 『格致藁 反誠箴』에서 太極은 心이고, 兩儀는 心身이고, 四象은 事心身物이라 하였으며<sup>11)</sup>, 八卦라 하는 것은 事心身物의 終始, 本末, 緩急, 先後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八卦중 乾兌는 事의 終始이며, 坤艮은 物의 本末이며, 離辰은 心의 緩急이며, 坎離는 身의 先後라 하였다. 결국 八卦라하는 것은 太極에서부터 이어오는 二分法的 思考의 연장선상에 있는 四象의 또다른 分派가 아니라 事心身物의 整體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2)</sup>

결국 東武는 太極·兩儀·四象을 '心'이라는 하나의 술어로서 서술하며 四象으로부터 八卦로의 또다른 二分法的 演繹이 아니라 四象 자체를 그 整體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2) 整體로서의 事心身物의 構造的 圖解

『格致藁 太極箴』에서 事心身物을 그 整體로 파악하면서 그 구조적 구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7) 이제마 : 格致藁, 덕흥인쇄소, 함흥, 1940.

8) 燕邊朝鮮民族自治州 民族醫學研究所 : 朝醫學, 연변, 1985

9)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수문사, 서울, 1976

10) 『格致藁 反誠箴』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11) 『格致藁 反誠箴』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

12) 『格致藁 反誠箴』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乾 = 事之始也 兌 = 事之終也

坤 = 物之本也 艮 = 物之末也

離 = 心之急圖也 震 = 心之緩圖也

坎 = 身之先着也 巽 = 身之後着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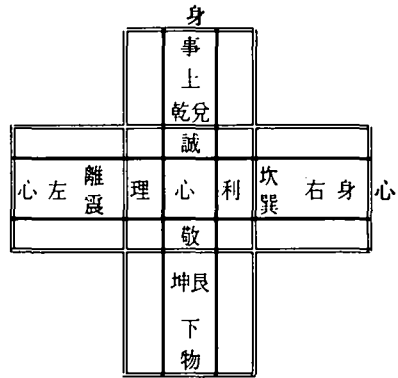
있다. 乾兌부위는 上에서 形하며 이는 中庸의 道가 昊天之下에서 行해지는 것이라 했으며, 坤艮部위는 下에서 形하며 이는 大學의 德이 大地之上에서 行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離震부위는 左에서 形하니 整齊知行之術은 그 理가 左에 있고, 我의 문제라 하였고, 坎巽부위는 右에서 形하니 平均財祿之權은 그 理가 右에 있고, 他의 문제라 하였다.<sup>13)</sup> 上에 위치하는 乾兌는 事의 終始라 했으니 事는 上에 위치하며, 下에 위치하는 坤艮은 物의 本末이라 했으니 物은 下에 위치하며, 左에 위치하는 離震은 心의 緩急이라 했으니 心은 左에 위치하며, 右에 위치하는 坎巽는 身의 先後라 했으니 身은 右에 위치한다 하겠다. 결국, 上下左右의 위치로 事物心身의 위치 및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上下를 묶어 身으로 놓고 身의 쓰임인 誠身 敬身을 身의 前後라 표현하며, 上의 乾에 誠을 下의 坤에 敬을 배치하였다. 左右를 묶어 心으로 놓고 心의 쓰임인 理心 利心を 心의 左右라 표현하며, 左의 離에 理를 右의 坎에 利를 배치하였다.<sup>14)</sup> 上下를 묶어 身이라 한것은 身의 實理는 直行하여 前後(上下)만 있을 뿐이지 左右는 없는 것이라 하였고, 左

右를 묶어 心이라 한것은 心의 實理는 廣濶하여 左右만 있을 뿐이지 前後(上下)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만일 身의 左右가 橫放하거나, 心의 上下가 出沒한다면 이는 私放逸慾의 所致라 하였다.<sup>15)</sup> 여기서의 心身은 兩儀之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格致藁의 太極箴에서는 太極이라는 요소의 二分法的 分派인 心身이 있고, 心의 요소와 身의 요소의 교차에 의한 事心身物 四象의 형성을 말하고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格致藁 反誠箴』에 나타난 事心身物의 構造的 圖解



13) 『格致藁 反誠箴』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部位 所以形於下也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位 所以形於右也

14) 『格致藁 反誠箴』

身有兩用 誠身 敬身也. 心有兩用 理心 利心也.  
誠身 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 敬於坤也  
理心 利心者 心之左右也 理於離而 利於坎也

15) 『格致藁 反誠箴』

身之實理 直行故 有前後而無左右, 心之實理 廣濶故 有左右而無前後  
若夫身之左右 橫放, 心之上下 出沒, 卽私放逸慾之所致也.

2. 『格致藁 儒略 事物』에 나타나 事心身物の 構造

『格致藁 儒略 事物篇』에서 事心身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一의 입장에서의 事心身物の 모습을 止行覺決이라 정의하고, 그의 전제조건으로 勤能慧誠을 제시하고 있으며, 萬의 입장에서 事心身物の 모습을 居群聚散이라 정의하였으며, 그의 전제조건으로 仁義禮智을 제시하고 있다.<sup>16)</sup>

이어 事心身物の 四四端을 정의하고 있다. 貌言視聽을 事四端으로, 辨思問學을 心四端으로, 屈放收伸을 身四端으로, 志膽慮意는 物四端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7)</sup>

한편, 心은 事에 應하고, 事는 心에 湊한다하여 心과 事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身은 物을 行하고 物은 身을 따른다하여 身과 物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sup>18)</sup>

事心身物の 四象이 있고 이를 事物과 心身の 兩儀的 요소로 총괄하고, 이는 결국 太極의 分派임을 말하고 있다.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난 事心身物の 構造

1) 太極·兩儀·四象의 정의

太極·兩儀·四象에 대한 정의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하늘이 萬物을 생함에 物과 則이 있는데, 人形은 物이 되고 人性은 則이 되며, 人形과 人性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 이를 이르러 太極이라 한다 하였다.<sup>19)</sup> 性에는 性의 쓰임이 있으니 性의 쓰임을 知라 정의하였으며, 形에는 形의 쓰임이 있으니 形의 쓰임을 行이라 정의하였다. 一知一行하고, 一生一成하여 易簡相得함을 이르러 兩儀라 정의하였다.<sup>20)</sup> 兩儀인 知行에는 舒卷進退와 止動覺決의 모습이 있으니, 知行의 變靜動化의 모습이 곧 四象이라 하였다. 결국, 舒卷의 모습을 갖는 知가 있고 이는 決覺로도 표현이 되며, 進退의 모습을 갖는 行이 있으며 이는 動止로도 표현이 된다. 舒而決, 卷而覺하는 知의 축과 進而動, 退而止하는 行의 축이 서로 만나 變靜動化의 모습을 만드니 이가 곧 四象이라 하였다.<sup>21)</sup>

16) 『格致藁 儒略 事物篇』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17) 『格致藁 儒略 事物篇』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膽慮意 物四端也.

18) 『格致藁 儒略 事物篇』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湊心也 察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1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天生萬物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謂之太極.

2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謂之兩儀.

2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謂之四象.

『格致彙』에서는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이라고 있다. 太極之心이란 결국 人形·人性을 의미하며 이는 中央之心이 된다. 兩儀之心은 心身之心이며 여기에서에서의 心身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知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太極으로부터 파생되는 兩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 四象은 兩儀의인 요소 즉, 心身 또는 知行的 變靜動化的 결과로 파생되는 것이며 이가 곧 事心身物之心이고 四象之心이 된다.

## 2) 四四端에 대한 정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는 事心身物の 표현인 止動覺決에 각각 四象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止는 物에 해당이 되며 四志로 魂魄心意를, 動은 身에 해당이 되며 四象을 屈放收伸으로, 覺은 心에 해당이 되며 四象을 辨思問學으로, 決은 事에 해당이 되며 四象을 貌言視聽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2)</sup> 神氣血精은 意魄魂志를 安하고 周而暢하여 載萬物한다 하였고, 首肱腹股는 능히 屈放收伸할 수 있으며 堅而勤하여

行萬物한다 하였고, 肺脾肝腎은 學問思辨을 安하고 있으며 忍而容하여 知萬物한다 하였고, 耳目舌頤는 聽視言貌하여 능히 聽視言貌할 수 있으며 敏而捷하여 覆萬物한다고 하였다.<sup>23)</sup> 『中庸』의 成物·覆物·載物<sup>24)</sup>의 개념을 확대하여 成物을 知物과 行物로 나누어 事心身物の 四四端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한편, 四四端의 用을 말하고 있는데 利勇謀知를 物의 用으로, 勤能慧誠을 身의 用으로, 明慎審博을 心의 用으로, 肅艾哲謀를 事의 用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5)</sup> 그러면서 物의 用인 利勇謀知와 心의 用인 明慎審博을 一心의 문제로 서로 묶고, 事의 用인 肅艾哲謀와 身의 用인 勤能慧誠을 一身의 문제로 서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物과 心의 요소는 天下를 愛憂하여 至誠不措한 知明의 요소로 귀결짓고, 事와 身의 요소는 一身을 愛憂하여 不放至敏한 行誠의 문제로 귀결짓고 있다. 이는 太極에서부터 시작하여 四四端까지로 벌려 놓은 것을 다시 兩儀의인 요소의 知行으로 모으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을 圖式化하면 다음<표 2>과 같다.

### 2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止有四志, 魄魂心意也. 動有四象, 屈放收伸也. 覺有四象, 辨思問學也. 決有四象, 貌言視聽也.

### 2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神安意, 氣安魄, 血安魂, 精安志. 首能伸, 肱能收, 腹能放, 股能屈.

肺安學, 脾安問, 肝安思, 腎安辨. 耳能聽, 目能視, 舌能言, 頤能貌.

精神氣血之能周而暢也, 周而暢, 故載萬物也. 首腹肱股之能堅而勤也, 堅而勤, 故行萬物也.

肺脾肝腎之能忍而容也, 忍而容, 故知萬物也. 耳目鼻口之能敏而捷也, 敏而捷, 故覆萬物也.

### 24) 『中庸』

博厚 所以載物也 高明 所以覆物也 悠久 所以成物也

### 2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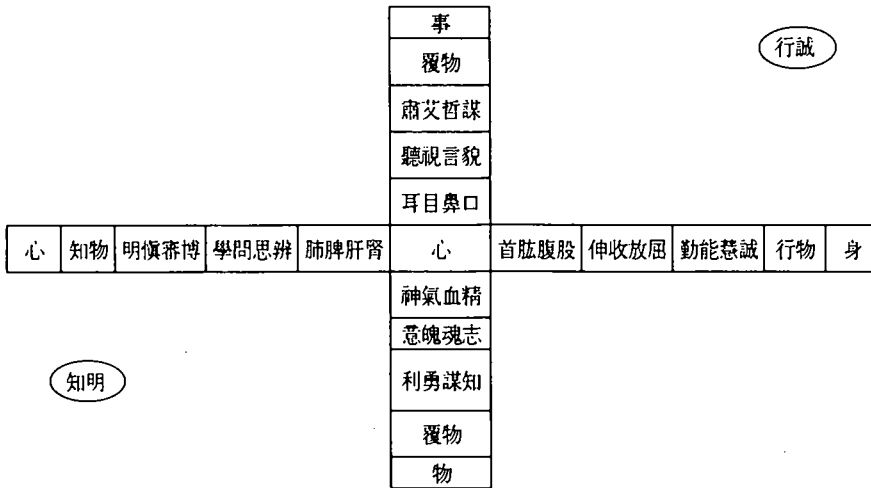
志膽心意 利用謀知也, 利勇謀知 物之用也.

屈放收伸 勤能慧誠也, 勤能慧誠 身之用也.

辨思問學 明慎審博也, 明慎審博 心之用也.

貌言視聽 肅艾哲謀也, 肅艾哲謀 事之用也.

〈표 2〉 草本卷에 나타난 事心身物の 構造的 圖解



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 나타난 事心身物の 構造

1) 性命論의 구조

東武는 事心身物の 要約精神에 근거하여 性命論을 論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事に 해당되

는 것은 天機이고 이는 大同한 것이며 이를 察 하는 주체는 耳目鼻口이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好善이다.<sup>26)</sup> 物에 해당되는 것은 人事이고 이는 各立한 것이며 이를 立하는 주체는 肺脾肝腎이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惡惡이다.<sup>27)</sup> 心에 해당되는 것은 知이

2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耳目鼻口 觀於天也

天時 大同也 世會 大同也 人倫 大同也 地方 大同也

大同者 天也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善聲 順耳也 善色 順目也 善臭 順鼻也 善味 順口也

人之耳目鼻口 好善 無雙也

2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肺脾肝腎 立於人也

事務 各立也 交遇 各立也 黨與 各立也 居處 各立也

各立者 人也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惡聲 逆肺也 惡色 逆脾也 惡臭 逆肝也 惡味 逆腎也

人之肺脾肝腎 惡惡 無雙也



고 이의 주체는 頤臆臍腹이고 이에 갖든 것은 籌策·經綸·行檢·度量이며 이는 博通한 것으로 性에 해당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驕矜伐夸의 邪心이 없어야 한다.28) 身에 해당되는 것은 行이고 이의 주체는 頭肩腰臀이고 이에 갖든 것은 識見·威儀·材幹·方略이고 이는 獨行하는 것으로 命에 해당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奪侈懶竊의 怠行이 없어야 한다.29)

이상을 圖解하면 표3)과 같다.

구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事·物에 해당하는 天·人은 人과 我的 구별에 있어 人에 해당이 되고, 주체를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라 하였으며, '人皆可以爲堯舜'할수 있는 것이며, 서로 對가 되고 上下의 관계로 배치할 수 있다.30) 心·身에 해당하는 知(性)·行(命)은 人과 我的 구별에 있어 我에 해당이 되고, 주체를 頤臆臍腹·頭肩腰臀이라 하였으며, '人皆自不爲堯舜'인 것이며, 서로 對가 되고 前後의 관계로 배치할 수 있다.31) 즉, 事心身物的 視覺下에

2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頤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籌策 不可驕也 經綸 不可矜也 行檢 不可伐也 度量 不可夸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籌策 博通也 經綸 博通也 行檢 博通也 度量 博通也  
 博通者 性也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驕心 驕意也 矜心 矜慮也 伐心 伐操也 夸心 夸志也  
 人之頤臆臍腹 邪心 無雙也

2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識見 必無奪也 威儀 必無侈也 材幹 必無懶也 方略 必無竊也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識見 獨行也 威儀 獨行也 材幹 獨行也 方略 獨行也  
 獨行者 命也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慾心  
 擅心 奪利也 侈心 自尊也 懶心 自卑也 慾心 竊物也  
 人之頭肩腰臀 怠心 無雙也

30)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耳目鼻口 人皆可以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人之耳目鼻口 天也 天 知也  
 人之肺脾肝腎 人也 人 賢也

3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  
 我之頤臆臍腹 我自爲心而 未免愚也 我之免愚 在我也  
 我之頭肩腰臀 我自爲身而 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 在我也

〈丑 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構造的 圖解

命		
天		
耳目鼻口	觀	天機
耳	聽	天時
目	視	世會
脾	嗅	人倫
口	味	地方
		大同
好善		

心		
知		
頤	籌策	驕
臆	經綸	矜
臍	行檢	伐
腹	度量	夸
	博通(性)	邪心

身		
行		
頭	識見	奪
肩	威儀	侈
腰	材幹	懶
臀	方略	竊
	獨行(命)	怠行

物		
入		
肺脾肝腎	立	人事
肺	達	事務
脾	合	交遇
肝	立	黨與
腎	整	居處
		各立
惡惡		

事·物인 天·人의 上下 關係와 心·身인 知·行의 前後關係로서 圖式化할 수 있다.

擴充論에서 정의하기를 性氣는 耳目鼻口가 天機(天時·世會·人倫·地方)를 察하는 과정중에 衆人이 서로 欺侮助保하는 것을 哀怒喜樂하는 것으로 이는 耳目鼻口의 聽視嗅味하는 機能이라 하였고, 情氣는 肺脾肝腎이 人事(事務·交遇·黨與·居處)를 行하는 과정중에 別人이 己를 侮己保助하는 것을 怒哀

2) 性命論과 擴充論·四端論의 相關性  
(事心身物的, 天人知行的 相關關係)

(1) 擴充論에서의 性氣과 情氣의 概念

樂喜하는 것으로 이는 肺脾肝腎의 怒哀樂喜하는 機能이라 하였다. 32)

(2) 事·物的 요소인 天·人과 性氣·情氣와의 關係

性命論을 擴充論에 언급된 性氣·情氣의 구조로서 연관지어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性命論에서의 事에 해당되는 구조는 耳目鼻口가 天機(天時·世會·人倫·地方)을 聽視嗅味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擴充論에서 논할 性氣의 기본구도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四象人의 偏差에 따라 각각의 性氣의 특징이 결정됨을 擴充論에서 제시하고 있다. 性命論에서의 物에 해당되는 구조는 肺脾肝腎이 人事(事務·交遇·黨與·居處)를 達合立定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擴充論에서 논할 情氣의 기본구도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四象人의 偏差에 따라 각각의 情氣의 특징이 결정됨을 擴充論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擴充論에서 말하고 있는 性氣·情氣는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事·物에 해당되는

天·人의 구조를 擴而充之하여 四象人 각각의 개체적 특징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性氣·情氣는 我와 對가 되는 人의 문제이며 이는 人皆可以爲 堯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性命論에서 天·人의 전제조건이자 속성으로 好善과 惡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性氣·情氣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자 속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四端論에서 性氣·情氣를 들어 四象人 각각의 臟局形成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는 人의 문제이자 '天稟之已定'으로 性命論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事·物 차원에서의 설명이자 四象人의 生理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3) 心·身的 요소인 知·行과 事·物的 요소인 好善·惡惡과의 관계 및 天稟之已定·天稟之已定-외의 구분

知·行은 心·身에 해당되는 구조이고 人과 對가 되는 我的 문제이며 '人皆自不爲堯舜'한 요소이다. 驕矜伐夸의 邪心과 奪侈懶竊의 怠心은 知行的 방해

32)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

적 요소가 되는 것으로 '存其心 養其性, 修其身 立其命'하여야 '人皆可以爲堯舜之知·行'할 수 있고<sup>33)</sup> 博通·正行할 수 있는 것이며 免愚·免不肖할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知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性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性命은 萬民이 慧覺과 資業으로 생하는 것이며, 慧覺과 資業은 德과 道가 말미암는 바가 된다.<sup>35)</sup>

한편, 心身의 구조이며 我的 문제인 知行을 강조하면서 이를 事物의 구조로서의 天人の 전제조건인 好善·惡惡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耳目鼻口가 天機를 聽視嗅味하는데 있어서의 전제조건인 好善을 人的 차원에서 행할뿐만 아니라 (好人之善) 이를 본으로 我的 차원에서까지 好善(我亦知善)하는 것이 知的 이상적인 것이라 하였다.(至

性之德也)<sup>36)</sup> 肺脾肝腎이 人事를 達合立定하는데 있어서의 전제조건인 惡惡을 人的 차원에서 행할뿐만 아니라(惡人之惡) 이를 본으로 我的 차원에서까지 惡惡(我必不行惡)하는 것이 行的 이상적인 것이라 하였다.(正命之道也)<sup>37)</sup> 그리하여 知行이 쌓여야 道德이 된다 하였고, 性命과 道德이 바로 知行의 문제라 하였다.<sup>38)</sup> 이는 '天稟之已定'이 天人이라면,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의 결정적 요소는 知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知는 事的 요소인 天과 상관이 있고 行은 物的 요소인 人和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결과적으로 人的 차원의 好善·惡惡의 범주에까지 我的 차원의 知行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는 '至性之德也'이며, '正命之道也'가 되는 것이다.

3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人之頷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 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3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頷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如切如磋而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則 自棄其知而 不能博通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赫兮喧兮而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則 自棄其行而 不能正行也  
頷臆臍腹 人皆愚也  
頭肩腰臀 人皆不肖也

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 無慧覺則死 慧覺者 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3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好人之善而 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3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惡人之惡而 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3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知行積則 道德也, 道德成則 仁聖也, 道德非他 知行也, 性命非他 知行也.

3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 人事之修不修而 命之傾也 不可不慎也

한편, 推論한다면 我的 차원의 知行이라 하는 것은 人的 차원의 好善·惡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知行的 修·不修의 與否에 따라서 命之傾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후천적인 知行에 의해 天稟之已定의 요소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 (4) 心·身的 요소인 知·行과 事·物的 요소인 性氣·情氣와의 관계

후천적인 知行에 의해 天稟之已定의 요소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性氣·情氣의 요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行身不誠하고 知人不明함에 기인하여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이 유발된다는 것<sup>40)</sup>으로, 바로 知·行의 不明·不誠에 의해 四象人 각각의 公利的 요소인 性氣와 情氣에 편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擴充論에서는 人的 요소인 性氣·情氣의 四象人別 偏差를 논하면서, 후반부에서는 我的 요소인 知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知的 주체인 頤臆臍腹에 驕矜伐夸의 邪心이 없어야 올바른 知的 성립이 가능하며 이를 각 四象人別로 그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知가 天的 요소인 性氣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性氣의 四象人내의 특징적인 대칭구조로서 서술하고 있다. 즉, 太陽人과 太陰人이 서로 對가 되고 있으며, 少陽人과 少陰人이 서로 對를 이루고 있다.<sup>41)</sup> 또한, 行의 주체인

頭肩腰臀에는 奪侈懶竊의 怠心이 없어야 올바른 行의 성립이 가능하며 이를 각 四象人別로 그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行이 人的 요소인 情氣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情氣의 四象人내의 특징적인 대칭구조로서 서술하고 있다. 즉 太陽人과 少陰人이 서로 對가 되고 있으며, 少陽人과 太陰人이 서로 對를 이루고 있다.<sup>42)</sup>

### 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나타난 事心身物의 構造

#### 1) 臟腑論의 구조

우선 臟腑論에서는 溫熱涼寒의 四氣가 人體의 前面部에서 後面部로 循行하는 經路를 제시하며 肺脾肝腎之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津·神은 溫氣, 膏·氣는 熱氣, 油·血은 涼氣, 液·精은 寒氣의 物質의 기초(根本)이자 산물(用) 된다. 胃脘·舌·耳·頭腦·皮毛는 溫氣가, 胃·兩乳·目·背脊·筋은 熱氣가, 小腸·臍·鼻·腰脊·肉은 涼氣가, 大腸·前陰·口·膀胱·骨은 寒氣가 循行하거나 머무르는 停處가 된다. 溫熱涼寒의 四氣가 胃脘·胃·小腸·大腸으로부터 前四海의 物質인 津膏油液을 이루고 이것이 前四海 部位인 舌下·頤間兩乳·臍·前陰毛際之內로 들어가 前四海를 이룬다. 이로부터 耳目鼻口로 나와 後四海로 들어가 神氣血精을 形成한다

4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

41)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陰之頤 宜戒驕心 太陰之臍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臍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耳目鼻口의 機能에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耳目鼻口라고 하는 것은 性氣의 機能이다. 後四海인 臟膜血精海의 清汁이 肺脾肝腎으로 歸한다 하니 여기서의 肺脾肝腎이란 部位적인 의미의 肺脾肝腎이다.43)

이러한 循行의 原動力은 性命論에서 부터 擴充論에 이르기까지 주요 論旨가 되고 있는 性氣와 情氣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臟腑論에서 언급되고 있는 耳目鼻口는 四氣의 循環經路중의 한 經路로써 言及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擴充論에서 性氣의 構造를 說明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性氣의 代名詞로 사용되고 있

는 것이다. 臟腑論에서의 耳目鼻口가 天機를 廣博하는 聽視嗅味之力이라 함은 擴充論에서 정의하고 있는 性氣의 作用을 의미한다. 이러한 作用에 의해 前四海(津海, 膏海, 油海, 液海)의 清氣를 上焦·中上焦·中下焦·下焦를 充滿케하고 神氣血精을 만들어 내며 이 새롭게 形成된 物質은 後四海의 部位 즉, 頭腦·背脊·腰脊·膀胱으로 흘러들어가 臟海·膜海·血海·精海의 後四海를 形成하는 것이다.44)

肺脾肝腎은 臟腑論 처음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部位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擴充論에서 情氣의 構造를 說明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情氣의 代名

43)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 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故  
 胃脘與 舌 耳 頭腦 皮毛 皆肺之黨也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臆間兩乳 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 外歸于筋故  
 胃與 兩乳 目 背脊 筋 皆脾之黨也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 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滓 外歸于肉故  
 小腸與 臍 鼻 腰脊 肉 皆肝之黨也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 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 外歸于骨故  
 大腸與 前陰 口 膀胱 骨 皆腎之黨也

44)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耳 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 爲神而 注之頭腦 爲腦 積累爲腦海  
 目 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清氣 充滿於中上焦 爲氣而 注之背脊 爲膜 積累爲膜海  
 鼻 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清氣 充滿於中下焦 爲血而 注之腰脊 爲凝血 積累爲血海  
 口 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清氣 充滿於下焦 爲精而 注之膀胱 爲凝精 積累爲精海

詞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의 肺脾肝腎이 人事를 鍊達하는 哀怒喜樂之力이라 함은 擴充論에서 정의하고 있는 情氣를 의미한다. 이런 情氣의 作用에 의해 後四海(賦海·膜海·血海·精海)의 清汁을 吸收하여 後四海의 部位(여기서 入于肺·脾·肝·腎의 肺脾肝腎은 後四海의 部位的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각 部位의 根源을 滋養케 하며, 한편 안으로는 前四海를 擁護하고 그 氣를 鼓動시켜서 津膏油液이 形成되도록 하게 한다.<sup>45)</sup>

前四海의 濁滓는 前四海를 나타내는 部位의 機能 즉, 胃脘·胃·小腸·大腸의 上升·停畜·消導·下降之力에 의해 자체 部位를 補益하는데 이용된다.<sup>46)</sup> 後四海의 濁滓는 後四海를 나타내는 部位의 機能 즉, 頭手腰足의 直伸·能收·寬放·屈強之力에

의하여 鍛鍊되어 皮毛·筋·肉·骨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여기서의 頭手腰足이란 後四海 部位를 지칭하는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을 나타내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sup>47)</sup>

性氣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하는 機能으로 耳目鼻口之用이 深遠廣大하면 그로 인하여 生成되는 後四海를 구성하는 物質인 精神氣血이 生하게 된다. 결국 精神氣血은 耳目鼻口의 用이된다. 또, 情氣란 肺脾肝腎의 怒哀樂喜하는 機能으로 肺脾肝腎之用이 正直中和하면 그로 인한 生成物質인 津膏油液이 充滿하게 된다. 결국 津膏油液은 肺脾肝腎의 用이 된다.<sup>48)</sup> 後四海의 部位인 頭腦·背脊·腰脊·膀胱에 깃들어 있는 後四海의 構成物質인 賦膜血精은 肺脾肝腎 즉 性氣가 作用하는 物質的인 根本이 되는 것

4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肺 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賦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而 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 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而 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 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而 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 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 以滋腎元而 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

46)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津海之濁滓則 胃脘 以上升之力 取其濁滓而 以補益胃脘  
膏海之濁滓則 胃 以停畜之力 取其濁滓而 以補益胃  
油海之濁滓則 小腸 以消導之力 取其濁滓而 以補益小腸  
液海之濁滓則 大腸 以下降之力 取其濁滓而 以補益大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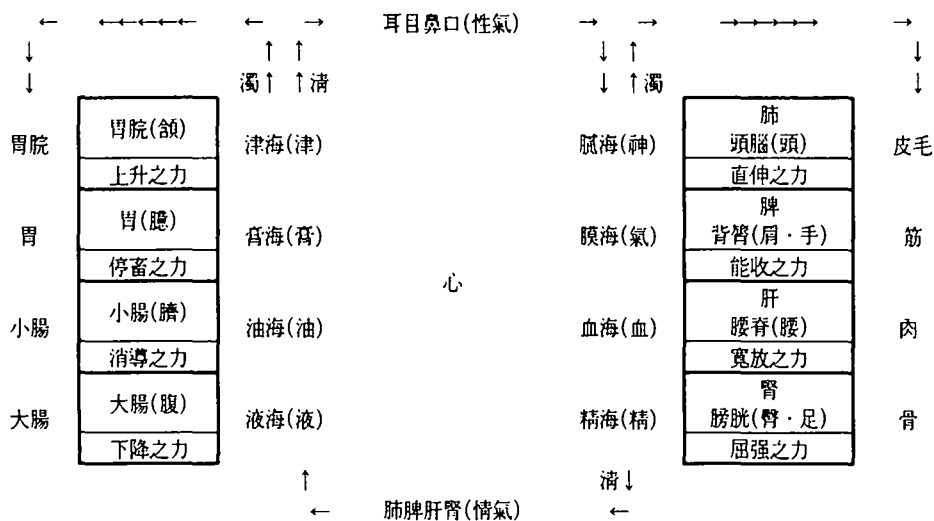
47)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賦海之濁滓則 頭 以直伸之力 鍛鍊之而 成皮毛  
膜海之濁滓則 手 以能收之力 鍛鍊之而 成筋  
血海之濁滓則 腰 以寬放之力 鍛鍊之而 成肉  
精海之濁滓則 足 以屈強之力 鍛鍊之而 成骨

48)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則 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 則 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則 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則 津液膏油 燬也

〈丑 4〉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의 構造的 圖解



이다.49) 또 前四海의 部位인 舌·乳·臍·前陰50) 에 깃들어 있는 後四海의 구성物質인 津膏油液은 耳目鼻口 즉 情氣가 作用하는 物質의인 근본이 되는 것이다.51)

心은 이 모든 것들의 主宰가 되어 頷臍臍腹의 知의 機能, 頭手腰足의 行의 機能, 知를 行으로 연결

하는 性氣인 耳目鼻口의 機能, 行을 知로 연결하는 情氣인 肺脾肝腎의 機能 등을 총괄하게 되게 된다.52)

이상의 내용을 圖式化하고 要約하면 다음〈표 4〉과 같다.

49)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頭腦之腦海 肺之根本也  
背臂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50) 이는 頷臍臍腹 또는 胃脘 胃 小腸 大腸의 다른 명칭이다.

51)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舌之津海 耳之根本也  
乳之膏海 目之根本也  
臍之油海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 口之根本也

52)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心 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膈中 光明瑩澈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頷臍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 2) 性命論과 臟腑論과의 구조적 상관성

性命論과 臟腑論의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耳目鼻口는 性氣를 나타내는 述語로 天機를 觀<sup>53)</sup>하는 聽視嗅味の 기능으로 前四海를 物質의 기초로 後四海를 形成케하는 原動力이 된다. 이는 擴充論에서 性氣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와 일치하고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天의 구조에 해당하니, 事心身物 중에서 事に 해당한다 하겠다.

肺脾肝腎은 情氣를 나타내는 述語로 人事에 立<sup>54)</sup>하는 達合立定하는 기능으로<sup>55)</sup> 後四海를 物質의 기초로 前四海를 形成케하는 原動力이 된다. 이는 擴充論에서 情氣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와 일치하고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人의 구조에 해당하니, 이는 事心身物 중에서 人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胃脘·胃·小腸·大腸은 인체의 前面部를 나타내며 前四海의 部位를 지칭하는데, 이는 頤臆臍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性命論의 頤臆臍腹과 같은 것이며 知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다. 前四海인 津海·膏海·油海·液海의 清氣는 性命論에서의 頤臆臍腹에 깃든 籌策·經綸·行檢·度量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博通한 것으로 性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濁滓는 籌策·經綸·行檢·度量의 博通을 방해하는 驕矜伐夸之邪心이라 할 수 있는데, 胃脘·胃·小腸·大腸의 上升·停畜·消導·下降之力으로 濁滓를 처리하고 자체를 補益한다 함은 바로 올바른 知를 통하여 驕矜伐夸之邪心을 없애는 구조와 일치한다. 이러한 前四海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상황은 天人知行의 知이며 事心身物 중에서 心에 해

당한다고 하겠다.

肺脾肝腎은 인체의 後面部를 나타내며 後四海의 部位를 지칭하는데, 이는 頭腦·背脊·腰脊·膀胱 및 頭肩腰腎(頭手腰足)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性命論의 頭肩腰腎과 같은 것이며 行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다. 後四海인 膩海·膜海·血海·精海의 清汁은 性命論에서의 頭肩腰腎에 깃든 識見·威儀·材幹·方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獨行한 것으로 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濁滓는 識見·威儀·材幹·方略의 獨行을 방해하는 奪侈懶竊之怠心이라 할 수 있는데 頭手腰足の 直伸·能收·寬放·屈強之力으로 濁滓를 처리하고 皮毛·筋·肉·骨을 이룬다 함은 바로 올바른 行을 통하여 奪侈懶竊之怠心을 없애는 구조와 일치한다. 이러한 後四海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상황은 天人知行의 行이며 事心身物 중에서 身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한편, 耳目鼻口의 天時·世會·人倫·地方을 廣博하는 聽視嗅味之力 즉 性氣의 作用에 의해 前四海의 清氣로 後四海를 形成하는데, 前四海의 清氣는 바로 後四海를 형성하기 위한 物質的인 기초가 된다. 肺脾肝腎의 事務·交遇·黨與·居處를 鍊達하는 哀怒喜樂之力 즉 情氣의 작용에 의해 後四海의 清汁으로 前四海를 形成하는데, 後四海의 清汁은 바로 前四海를 형성하기 위한 物質的인 기초가 된다. 이를 性命論의 天人과 知行의 관계로서 論한다면 다음과 같다. 性命論에서 “好人之善而 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而 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라 했으니 올바른 知를 통하여 天的 요소의 전제조건인 好善이 완성되게 되며, 올바른 行을 통하여 人的 요소의 전

53) 擴充論에서는 察이라 표현하고 있다.

54) 擴充論에서는 行이라 표현하고 있다.

55) 擴充論에서는 이를 怒哀樂喜의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조건인 惡惡이 완성된다. 이는 臟腑論에서 前四海의 淸氣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性氣)이 발현하는 물질적인 기초가 되며, 後四海의 淸汁이 肺脾肝腎의 哀怒喜樂之力(情氣)이 발현하는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구조와 일치한다. 한편, 四端論에서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라 하여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을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의 원인으로 놓은 것도 臟腑論의 구조와 일치한다. 올바른 知란 驕矜伐夸之邪心을 없애는 것으로 이는 臟腑論의 胃脘·胃·小腸·大腸의 上升·停畜·消導·下降之力으로 濁滓를 처리하는 과정과 일치하며, 올바른 行이란 奪侈懶竊之怠心을 없애는 것으로 이는 臟腑論의 頭手腰足의 直伸·能收·寬放·屈強之力으로 濁滓를 처리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상을 구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事·物에 해당하며 天·人의 구조에 해당하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은 서로 對가 되고 上下의 관계로 배치할 수 있고, 心·身에 해당하며 知(性)·行(命)의 구조에 해당하는 頤臆臍腹·前四海와 頭肩腰腎·後四海는 서로 對가 되고 前後의 관계로 배치할 수 있다. 즉, 事心身物의 視覺下에 事·物인 天·人의 上下關係와 心·身인 知·行의 前後關係로서 형성되는 性命論의 구조와 臟腑論의 구조는 서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 III. 總括 및 考察

기존 『周易』에서는 太極, 兩儀, 四象, 八卦를 二分法的인 사고로 설명하고 있으나 東武는 이와는 달리 『格致藥 反誠箴』에서 太極은 心이고, 兩儀는 心身이고, 四象은 事心身物이라 하였으며, 八卦라 하는 것은 事心身物의 終始, 本末, 緩急, 先後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八卦라 하는 것은 太極에서부터 이어오는 二分法的 思考의 연장선상에

있는 四象의 또다른 分派가 아니라 事心身物의 整體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東武는 太極·兩儀·四象을 하나의 술어로서 서술하며 四象으로부터 八卦로의 또다른 二分法的 演繹이 아니라 四象 자체를 그 整體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事心身物을 그 整體로 파악하면서 그 구조적 구도를 설명하기를 上에 위치하는 乾兌는 事의 終始라 했으니 事는 上에 위치하며, 下에 위치하는 坤艮은 物의 本末이라 했으니 物은 下에 위치하며, 左에 위치하는 離辰은 心의 緩急이라 했으니 心은 左에 위치하며, 右에 위치하는 坎離는 身의 先後라 했으니 身은 右에 위치한다 하여 上下左右의 위치로 事物心身의 위치를 정하고 있다. 한편, 上下를 묶어 身으로, 左右를 묶어 心으로 놓고 있는데 여기서의 心身은 兩儀之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格致藥 反誠箴』에서는 太極之心, 兩儀之心, 事心身物之心을 설명하고 이를 구조적인 입장에서 圖式化하고 있는데, 太極이 있고 이로부터 분파되는 心身이라는 二元的 構造의 兩儀의인 요소가 있으며, 이 두 요소의 교차에 의한 事心身物이라는 四元的 分과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整體가 된다.

『格致藥 儒略 事物』에서는 事心身物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事心身物 相互間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아울러 『格致藥 反誠箴』에서와 마찬가지로 太極으로부터 파생되는 一과 萬의 대립을 통한 兩儀의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니 이가 곧, 事物과 心身の 二元的 構造를 의미한다. 이런 二元的 축의 교차로 인하여 事心身物 四象의 구조가 형성이 되고, 事心身物의 四象으로부터는 四四端으로의 또다른 四分法的인 分과를 낮게 된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太極·兩儀·

四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즉, 하늘이 萬物을 생함에 物과 則이 있는데, 人形은 物이 되고 人性은 則이 되며, 人形과 人性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 이를 이르러 太極이라 한다 하였다. 性에는 性의 쓰임이 있으니 性의 쓰임을 知라 정의하였으며, 形에는 形의 쓰임이 있으니 形의 쓰임을 行이라 정의하였다. 一知一行하고, 一生一成하여 易簡相得함을 이르러 兩儀라 정의하였다. 兩儀인 知行에는 舒卷進退와 止動覺決의 모습이 있으니, 知行의 變靜動化의 모습이 곧 四象이라 하였다. 결국 人形·人性은 하나로써 이는 中央之心이 되며, 兩儀之心은 心身之心이며 이가 곧 知行으로 太極으로부터 파생되는 兩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 四象은 兩儀의인 요소 즉, 心身 또는 知行의 變靜動化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이니 知的 요소의 축과 行的의 요소의 축이 이차적으로 교차하여 四象을 만들고 이가 곧 事心身物이고 四象之心이 된다. 『格致彙』에서와 마찬가지로 四象으로부터의 二分法的인 파생이 아닌 또다름 四分法的인 표현인 四四端으로 분과되고 있다.

性命論을 事心身物的 視覺에서 事·物인 天·人의 上下 關係와 心·身인 知(性)·行(命)의 前後關係로서 圖式化할 수 있으며, 天·人의 주체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고 知(性)·行(命)의 주체는 頤臆臍腹·頭肩腰腎이다.

擴充論에서 性氣는 耳目鼻口の 聽視嗅味하는 機能으로, 情氣는 肺脾肝腎의 怒哀樂喜하는 機能으로 표현되며, 擴充論에서 말하고 있는 性氣·情氣는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天(事)·人(物)의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며 擴充論에서는 이를 擴而充之하여 四象人 각각의 개체적 특징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性氣·情氣는 我와 對가 되는 人의 문제이며 이는 '人皆可以爲堯舜'할 수 있는 부분이고 '天稟之已定'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한 性命論에서 天·人의

전제조건이자 속성으로 好善과 惡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性氣·情氣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자 속성임을 알 수 있다. 心身의 구조이며 我의 문제인 知行을 事物의 구조로서의 天人의 전제조건인 好善·惡惡과의 연계를 시키면서 知는 事的 요소인 天과 상관이 있고 行은 物的 요소인 人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我의 차원의 知行이라 하는 것은 人의 차원의 好善·惡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知行의 修·不修의 與否에 따라서 命之傾이 결정될 수 있고, 후천적인 知行에 의해 天稟之已定의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였다. 후천적인 知行에 의해 天稟之已定의 요소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性氣·情氣의 요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知·行의 不明·不誠에 의해 四象人 각각의 公利的 요소인 性氣와 情氣에 편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擴充論에서는 知가 天의 요소인 性氣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性氣의 四象人내의 특징적인 대칭구조로서 서술하고, 行이 人의 요소인 情氣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情氣의 四象人내의 특징적인 대칭구조로서 서술하고 있다. 결국, 性命論과 擴充論에서는 '天稟之已定'의 요소이며, 人의 요소인 事物의 上下의 축과 '天稟之已定之外'의 요소이며 我의 차원인 心身(知行)의 축을 그 기본구도로 전개하며, 그 양축을 바탕으로 事心身物(天人知行)의 四元의 구조와 그 상호관계를 논하고 있다.

臟腑論의 구조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즉, 胃脘·胃·小腸·大腸 및 頤臆臍腹은 前四海의 部位를 나타내는 述語이며, 肺脾肝腎, 頭腦·背脊·腰脊·膀胱, 頭肩腰腎, 頭手腰足은 後四海의 部位를 나타내는 述語이다. 耳目鼻口는 性氣를 나타내는 述語로 前四海의 淸氣를 物質的 기초로 後四海를 形成케하는 原動力이 되며, 肺脾肝腎은 情氣를 나타내는 述

語로 後四海의 清汁을 物質的 기초로 前四海를 形成케하는 原動力이 된다. 前四海 중 清氣는 後四海를 形成하기 위한 物質的인 기초가 되며, 後四海 중 清汁은 前四海를 形成하기 위한 物質的인 기초가 된다. 前四海 중 濁滓는 胃脘·胃·小腸·大腸의 機能에 의해 처리되어 前四海 자체를 補益케 하고, 後四海 중 濁滓는 頭手腰足の 機能에 의해 처리되어 皮毛筋骨의 이루게 된다.

性命論과 臟腑論의 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臟腑論의 耳目鼻口는 性氣를 나타내는 述語로 擴充論에서 性氣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와 일치하고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天의 구조에 해당하니, 事心身物 중에서 事に 해당한다 하겠다. 肺脾肝腎은 情氣를 나타내는 述語로 擴充論에서 情氣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와 일치하고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人의 구조에 해당하니, 이는 事心身物 중에서 人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前四海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상황은 天人知行의 知이며 事心身物 중에서 心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後四海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상황은 天人知行의 行이며 事心身物 중에서 身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性命論에서 올바른 知를 통하여 天的 요소의 전제조건인 好善이 완성되게 되며, 올바른 行을 통하여 人的 요소의 전제조건인 惡惡이 완성된다는 것은 臟腑論에서 前四海의 清氣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性氣)이 발현하는 물질적인 기초가 되며, 後四海의 清汁이 肺脾肝腎의 喜怒哀樂之力(情氣)이 발현하는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구조와 일치한다. 결국, 臟腑論을 구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事·物에 해당하며 天·人의 구조에 해당하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은 서로 對가 되고 上下의 관계로 배치할 수 있고, 心·身에 해당하며 知(性)·行(命)의 구조에 해당하는 頤臆臍腹·前四海와 頭肩腰腎·後四海는 서로 對가 되고 前後의 관계로 배치할 수 있다. 즉,

事心身物の 視覺下에 性命論의 구조와 臟腑論의 구조는 서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東武는 자연, 인간사회, 인체 등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인식체계와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그의 저서 전면에 기본적인 인식방법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기존의 陰陽五行의 사고와는 거리가 있고, 또한 기존의 周易의 사고와도 차이를 두고 있다. 즉, 太極·兩儀·四象, 다시 말하면 心·心身·事心身物을 그 기본으로 하여 모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太極이 있고, 太極의 兩儀의인 요소로 心身(또는 知行)이 있으며, 心(知)의 좌표축와 身(行)의 좌표축이 교차하여 事心身物이라는 四元의 구조의 기본이 성립된다. 事心身物의 四象으로부터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한 八卦로의 演繹이 아니라 四四端이라는 四分法的인 사고로 분과해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太極이라는 整體가 있고, 이를 心身の 양면으로 보는 二分法的인 사고가 있고, 이 二元的 좌표축을 바탕으로 四分面의 좌표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며, 이의 잣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格致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등에서 그 기본을 그리고 있고, 이는 『東醫壽世保元』으로 넘어와 性命論·四端論·擴充論·臟腑論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기본구도가 性命論·四端論·擴充論에 잘 정리되어 나타나고, 病證論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단계인 臟腑論에서는 이 모든 구도가 인체상의 술어로 옮겨져 설명되어지고 있다.

#### IV. 結 論

1. 『格致藁 反誠箴』, 『格致藁 備略 事物』,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나고 있는 인식의 구조는 太極, 兩儀, 四象을 그 기본으

로 하고 있는데, 太極之心이 있고, 거기서 二分法的으로 분파된 兩儀之心이 있고, 거기서 分派된 四象之心이 있다. 太極之心은 中央之心이고, 兩儀之心은 心身 또는 知行으로 표현이 되는데, 心的·知的 요소의 축과 身的·行的 요소의 축이 교차하여 事心身物의 四象을 형성한다. 四象으로부터는 기존의 周易에서와 같은 二分法的인 分派에 의해 八卦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四分法的인 分派에 의해 四四端을 형성한다. 이상이 동무의 기본인식체계의 구조라 할 수 있다.

2. 東武는 事心身物의 四象의 시각에서 그 기본을 삼고, 이를 다시 心身兩儀的 시각에서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를 太極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는 인식의 요약과정을 갖는다.
3. 이상의 인식과정은 『東醫壽世保元』性命論·四端論·擴充論에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나니, 天稟之已定の 요소이며, 人의 요소인 事物의 上下의 축과 天稟之已定之外의 요소이며 我의 차원인 心身(知行)의 축을 그 기본구도로 전개하며, 그 양축을 바탕으로 事心身物(天人知行)의 四元의 구도와 그 상호관계를論하고 있다.
4. 東武의 太極, 兩儀, 四象 다시 말해서 心, 心身, 事心身物의 인식구조는 인체에서의 용어로 바뀌어져 病證論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는 臟腑論에 표현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1997.
2. 홍순용·이을호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94.
3.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 教室,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1998.
4. 이제마 : 格致藥, 덕흥인쇄소, 함흥, 1940.
5. 燕邊朝鮮民族自治州 民族醫學研究所 : 朝醫學, 연변, 1985
6. 박찬국 역 : 臟象學, 성보사, 서울, 1992
7. 홍원식 편 : 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8. 김완희 편 : 한의학원론, 성보사, 서울, 1990.
9. 이정호 : 周易正義, 아세아문화사, 서울, 1984.